

조선

2026 11

(848)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2 ‖ 최정예강군육성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력사적인 대회합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진행

1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2 ‖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성대히 진행

22 ‖ 조선로동당창건 81돐에 즈음하여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성대히 진행

32 ‖ 조선로동당창건 81돐 경축공연 진행

3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 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3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단동시를 방문하시였다

소 식

44 ‖ 조선로동당창건 81돐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48 ‖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에 즈음하여

50 ‖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 진행

54 ‖ 우리 태권도선수들 《세계컵태권도경기대회-2026》에서 26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41개의 메달 쟁취

56 ‖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 진행

오늘의 조선

58 ‖ 정평군에 넘치는 새 생활

62 ‖ 건강에 좋은 식료품들을 생산한다

66 ‖ 인재들을 키우는 금성제1중학교

74 ‖ 함경남도승마구락부

76 ‖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사람들

78 ‖ 3개의 박사메달

80 ‖ 불빛흐르는 강변의 정서

표 지 :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 진행
뒤표지: 세계어린이건강의 날
편집: 변일진, 김규성, 리금주, 조령, 조효성



22



44



50



58



80

최정예강군육성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력사적인 대회합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진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주권과 조선인민의 명예를 굳건히 수호하며 부흥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거창한 변혁투쟁에서 전설적인 우리 군대의 핵심적, 전위적역할이 비상히 부각되고있는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가 10월 22일과 23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이후 전군적인 첫 회합으로 되는 이번 대회는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이며 군인들의 생활거점인 중대강화를 전군강화의 출발점, 중심고리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모든 중대를 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옹위하는 최정예전투대오, 그 어떤 전투임무도 자립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다병종화된 만능중대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옴으로써 전군의 중대들을 혁명전쟁의 승리를 군사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담보할수 있는 최정예화된 전투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과업과 실천방도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 《새시대 강군건설과 중대장들의 임무》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시대 강군건설위업의 력사적인 로정에 뚜렷한 좌표를 새기게 될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에서 우리 무력의 젊은 핵심들이고 기본전투단위의 지휘관들인 중대장들을 직접 마주하게 된 감회를 피력하시면서 우리 군대의 기층에서 혁명무력의 강대함과 조선의 부강번영을 받들어올리는 고임돌이 되고있는 전군의 중대장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투쟁기에는 중대장들의 책임적이고 헌신적인 복무의 고귀한 행적들이 력력히 수놓아져 있다고 하시면서 조국과 전우들에게 바치는 삶을 더없는 영예로 새기며 높은 자각과 강인한 분발로 본분에 충실한 전투단위 지휘관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군대의 힘이며 우리 당과 국가의 긍지이고 자랑이라고 평가하시고 국권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전구들을 굳건히 지켜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을 이어가고있는 전군의 중대관병들에게 전투적 격려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최강의 무장력을 육성하는것을 새 전망계획기간에 이룩해야 할 선점과업으로, 현실적인 목표로 내세운 당중앙위원회가 당 제9차대회이후 군사부문의 첫 대회로 전군적인 중대장대회를 소집한 의도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대강화에서 당중앙이 일관하게 주장하며 힘을 넣고자 하는 중심고리는 바로 중대이며 우리가 결행하는 력대초유의 군건설대업에서 중대는 가장 관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중대중시, 중대강화에 기초한 강군건설로선이야말로 전군의 면모를 가장 빠른 투쟁에 전군의 중대장들을 총궐기시켜 새시대 강군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을 배가하는데서 중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진다.

대회에서는 최근년간 중대중시, 중대강화에 기초한 강군건설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전면적으로 분석총화되고 현시기 당이 제시한 중대강화의 목표에 립각하여 중대의 실전능력제고에서 실질적이며



기간내에 일신시킬수 있는 최상의 선택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대강화의 총적방향은 중대의 전투력과 면모를 최정예혁명무력의 위상과 위세에 걸맞게 일신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전군의 중대들이 하나같이 사상정신적으로 순결하게 정화되고 군사기술적으로 강력히 정예화되며 정규화적면모에서 흠잡을데 없는 완벽한 전투력량으로 다져지면 우리 군대의 강세는 비할바없이 증폭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에는 마땅히 우리 무력의 강대함과 위풍이 체현되여야 하고 중대의 모습에서 강군의 위상이 직관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중대장들을 믿고 새시대 강군육성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려는 당중앙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 구상하는대로,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대로 전군을 하루빨리 동시적으로 최정예무력으로 변화



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중대장들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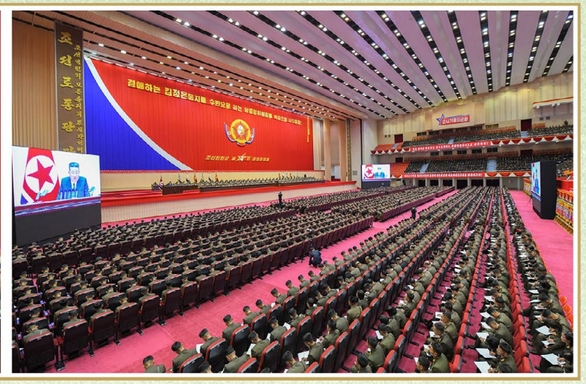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대회가 새시대 강군건설에서 중대가 차지하는 지위를 더욱 똑바로 인식하고 비상히 각성하여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떼는 계기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군건설의 세포인 중대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관건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본 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 당이 그 실행을 본격화하려는 중대의 전투력강화의 기본목표와 그것이 당의 군사전략적방침실현에서 가지는 획기적의의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늘 생활하는 중대장들이 자기의 아들딸들을 맡긴 인민들의 믿음과 부탁을 항시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기며 지휘관이기 전에 중대군인들의 친형이 되고 진정한 전우가 되여 중대를







병사들의 정든 집으로 만들기 위해 지극한 성심과 헌신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군대, 사상의 군대로서의 우리 군대의 본태를 굳건히 이어가야 할 새세대 지휘관들이고 전쟁마당에서 병사들을 직접 이끌고 승전을 달성해야 할 핵심들인 중대장들이 중대의 사상적정예화를 만반으로 다지고 강철같은 군기속에 중대관리와 군인생활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대강화를 위한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관건적인 문제는 중대장들자신이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실력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부여된 조직지휘자적역할을 다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이 결심한 강군화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공화국 무력의 중대장들이 갖추어야 할 정치사상적, 군사실무적 자질과 능력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의 기본정신은 최강의 중대육성으로 최강의 군대를 건설하고 우리 식의 군사혁명을 다그치자는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의 모든 중대들이 최강으로 준비되면 우리 무력의 림전태세가 완비되고 새시대 강군건설의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중대장들이 강군건설에서 맡고있는 각자의 사명을 무겁게 자각하고 책임적인 활약으로써 중대강화의 새로운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대회에서는 국방상 김성기동지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이어 당이 준 전투명령을 한목숨바쳐 관철한 중대장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와 높은 전투지휘능력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화면편집물시청이 있었다.

대회에 이어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특출한 공로가 있는 모범적인 중대장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27일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의 새로운 혁신과 동시적발전을 가속화하는 력사적계기로 된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 군대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새세대 지휘성원들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전투적기백을 힘있게 과시한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세계를 진감하는 조선인민군의 강대함은 그를 받드는 기층이고 주추인 모든 중대들이 굳건하고 그 어떤 첨단무장장비도 견주지 못할 무궁무진한 정치사상적위력, 무비의 전력을 장전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군인대중의 생활거점, 우리 무력의 기본전투단위를 책임지고 열렬한 충의심과 혁명적인 복무정신, 헌신의 노력으로 무수한 군공과 위훈창조의 견인기가 되고있는 중대장들의 혁혁한 공적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목적한 강군건설에서 감당해야 할 중대장들의 독보적역할은 지휘관서렬에서의 순위나 령장의 별로 규정할수 없는 참으로 막중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중대강화와 더불어 전군을 강화하고 새시대 군사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거창한 력사적과업을 다름아닌 중대장들을 믿고 과감히 결행하려는 당중앙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대장들의 제1의 혁명임무는 만반의 림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구분대의 싸움준비완성이며 그 실행방도는 줄기차고 강도높은 훈련혁명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중대를 견결한 혁명신념과 애국정신, 무쌍한 영웅적 기개가 차넘치고 무적의 전투력을 지닌 일당백의 강병대오로 만드는 자랑찬 성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조직지휘자적실력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성이 투철하고 열정적이며 견실한 중대장들에 의해 우리 무력의 기반은 더욱 억세여지고 강군위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중대강화를 위한 사업에 분투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을 안아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성대히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현대성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끊임없이 고도화해나가는 투쟁려정에 또 하나의 괄목할 페지를 아로새기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10월 29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각이한 류형의 전략 및 작전전술급 다목적 무인기들과 자폭무인공격기들을 비롯하여 무인항공기술분야의 최신성과들과 발전전망을 보여주는 전투체계들이 전시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시회행사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춘룡동지가 기념행사발언을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군사력에서 중요구성부분으로 되는 무인항공기술분야의 잠재적발전성을 직관할수 있는 이번 전시회의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인기분야에서의 절대적우세를 목적하는것은 현대전의 변화양상에 따르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하시면서 무인항공기술력의 급속한 확대강화를 위한 우리 당의 국방발전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국가적인 중대조치들을 발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평화와 힘은 분리할수 없는 관계에 있다, 평화의 가격은 수자로 매길수 없는것이며 따라서 부유한 나라도 돈으로 지키지 못하는것이 평화이다,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 이것은 오늘의 분주한 세계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상식이다, 우리가 핵보유국의 기능을 점거하고 상용무력강화에서도 비약적인 갱신을 이룩해가고있는것처럼 나라의 과학계가 총분기하여 무인항공기술분야, 국방인공지능분야에서도 기적적인 결실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된 무인전투체계들을 보시면서 우리 무력을 현대전쟁에 상응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도약시키는데서 무인항공기술의 발전이 가지는 중요성과 군사적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인무장장비들이 전쟁의 주되는 군사활동자산으로 등장하고 그 리용범위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는 현실적발전추이에 맞게 이 분야의 핵심기술고도화와 무인무장장비체계들의 인공지능화 및 작전능력고도화를 무력현대화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점과제로 계속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공화국무력의 강세와 그를 억척같이 뒤받침하는 자립적방위산업의 지속적이며 독보적인 진보로 군사력 강화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해야 하며 그 전략적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국방과학의 경이적인 발전상을 직접 체감하면서 참가자들은 긍지와 자부심속에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이어 《무인항공기술발전－2026》전시회를 기념하여 각종 무인기들과 중요무기체계들의 위력시위가 있었다.

위력시위에서는 각이한 전술자폭무인공격기들과 전술순항비행탄사격, 다목적무인기의 공습, 600㎜다련장방사포병대대 사격이 진행되였다.

전술자폭무인공격기들과 다목적무인기에서 발사된 공중대지상미싸일들, 순항비행탄들은 섬표적을 100%의 명중정확도로 정밀타격하였다.

이날 일명 《저격수》라고 불리우는 초정밀 600㎜대구경 방사포의 전투사격이 처음으로 직접 군중앞에 공개되였다.

모든 중요무기체계들의 전투적신뢰성과 효과성이 만족스럽게 검증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강력하고 정의로운 전쟁억제의 힘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평화로운 삶, 사회주의발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해나갈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드팀없고 불변한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륙군
2101003
1226100031S







조선로동당 창건 81돐에 즈음하여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성대히 진행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며 우리 국가의 강대함을 억척으로 다지고 전면적 국가발전의 새시대, 강국건설의 새 전기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심이 10월의 조국강산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81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이 개관되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억세게 떠메고 견결한 자주적 신념과 결단, 피타는 심혼과 뜨거운 열애로 엮어온 우리 당의 성스러운 국방공업령도사와 그 위대한 산아들이 집대성되여있는 국방혁명박물관은 조선인민의 강인한 정신과 투철한 혁명의지, 우리 국가가 지닌 절대의 힘을 과시하는 만년대계의 대국보관이다.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이 10월 11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개관식장에는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비범특출한 령도, 위대한 헌신과 완강한 실천집행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력의 최전성시대를 열어놓으신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넘쳐흐르고있었다.

국방성중앙군악단이 특색있고 기백있는 군악례식을 선보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우리 당, 우리 국가와 인민의 강대성과 영웅성의 상징이시며 거룩한 존엄과 빛나는 영예의 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와 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국방공업부문 지도간부들, 국방성 지휘관들, 군종사령관들, 주요대련합부대 지휘관들, 건설자들, 국방혁명박물관 일군, 종업원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참가자들은 최근 우리 군대에 배비된 무장장비들에 대한 화면편집물을 시청하였다.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을 기념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정식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국방혁명박물관은 당의 령도밑에 우리 군수공업이 아로새겨온 장구하고 영광스러운 발전사의 긍지높은 총화이며 우리 국가방위력의 높이와 면모, 능력을 과시하는 축도이라고 하면서 조국의 오늘과 미래앞에 이룩해놓은 당의 업적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박물관의 건립은 그 심원한 력사적행로에 대한 시대와 인민의 가장 훌륭한 칭송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국방발전에 관한 당의 전략적강령과 그 실현을 위한 과제들은 사실상 우리의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을 또다시 새롭게 창설하는것과 같은 말그대로의 혁명이였다고 하면서 세계국방건설사에 없는 이런 거창한 혁명을 발기하고 직접 인도하신분은 우리의 **김정은**동지이시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국방혁명박물관은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애국정신과 국방건설로선, 비범특출한 령도력의 집합체이며 우리당 80여년사의 최대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 박물관은 우리가 걸어갈 앞으로의 로정도를 선명히 그려주고있으며 우리가 지니고있는 자신심의 근원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개관테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개관식참가자들과 함께 박물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개척되고 승승장구하여온 주체적국방공업의 성스런 력사와 국방현대화를 위한 개척과 초행의 간고한 행로에 새겨진 만단사연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면서 국방혁명박물관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안전, 인민의 행복이 어떻게 지켜지고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불멸의 문헌고이며 국보중의 국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혁명박물관과 같은 혁명재보는 조국과 후대들앞에 떳떳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순간도 멈춤없이 줄기차게 걸어온 조선로동당만이 가질수 있는 위대한 사적이며 스스로 자기를 지킬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지닌 강대한 국가와 인민만이 세울수 있는 고귀한 기념비이라고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국방공업이 도달한 높이는 조선의 정신과 힘, 조선사람의 슬기로 전취한 영광과 명예의 정상이며 혹독한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국방발전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성원해준 우리 인민의 강인성과 애국충정이 안아온 값비싼 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것을 절대사명으로 하여 탄생한 우리 당에 있어서 세계최강의 국방공업을 건설하는것은 응당한 천직이고 특유의 활동방식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국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한층한층의 디딤돌이 되여주는 강위력한 주체병기들은 독보적인 발전과 진화의 로정을 경과하며 더욱 줄기차게 개발완성될것이며 박물관의 규모와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
7ㅈ-16-022





나날이 확대풍부화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혁명박물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우리 당의 혁명력사관을 지켜선 남다른 긍지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 국가의 자위국방건설사를 길이길이 전해가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선전원, 사상적근위병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참관자들은 향도의 당 조선로동당이 조선혁명을 인도하기에 우리는 영원히 승리한다는 철의 진리와 우리당 자위로선의 생활력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자위국방을 주권수호와 국익사수, 혁명발전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부국강병의 성업실현을 위한 력사적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존엄과 위대성을 힘있게 떨쳐가시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로동당창건 81돐 경축공연 진행



주체혁명의 위대한 향도자, 필승불패의 전위대인 조선로동당에 대한 열화의 신뢰심이 뜻깊은 10월명절과 더불어 더욱 승화되고있는 속에 당창건 81돐 경축공연이 10월 10일 평양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공연장소에는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인민의 모습을 새기고 장엄한 출발을 뗀 그날로부터 장구한 기간 추호의 탈선이나 변색도 없이 세계유일무이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며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이 숙원해온 존엄과 영광의 시대를 펼쳐가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건당사와 불후할 공적에 대한 뜨거운 회억과 경의심이 차넘치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당창건일을 맞이한 전체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와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 시안의 창작가, 예술인들, 청년학생들, 평양시민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서곡 《조선로동당 만세》,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전인민적인 로동당송가들과 애국의 노래들을 성악과 무용, 교예와 체조, 군악례식과의 예술적 조화속에 형상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인민의 신성한 체험이 낳은 우리당 찬가들을 열창하며 출연자들은 장장 80여성상 간고하고도 성스러운 사회주의 위업의 초행길을 헤쳐오면서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에 충직한 존엄높은 국가를 일떠세우고 세기와 년대들을 이어 세인을 놀래우는 거창한 기적과 전변들을 창조하여온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만고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가장 정의로운 사명과 숭고한 리념을 실현해나가는 려정우에 세계최장의 집권사를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위대함과 강대성에 대한 자부가 뜨겁게 마쳐오고 우리 위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항로에로 확신성있게 이끄는 예지로운 정치적참모부를 가진 크나큰 영광과 행운을 감명깊게 되새겨주는 명곡들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어머니 우리 당을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원대한 포부를 견결히 성취해나갈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열정으로 충만된 다채로운 종목들이 련이어 무대에 펼쳐졌다.

종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막을 내린 공연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향도하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길이고 마중하는 미래는 끝없이 아름답고 창창할것이라는 신심과 락관을 배가해주었다.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진함없을 신념의 노래, 애국의 노래들로 충만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연성과에 만족을 표시하시며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돐 경축공연은 온 나라 인민이 환호하는 위대한 어머니의 명절,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명절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9일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열풍》의 주제로 열리는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에는 주요경공업공장들과 새로 일떠선 시, 군옷공장들을 비롯하여 270여개의 피복, 신발, 가방생산단위들에서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파악하여 제작한 30여종에 7만 700여점의 피복제품과 60여종에 17만여컬레의 신발이 출품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향상을 추동하며 급속한 진보를 이룩하고있는 경공업부문의 개화발전상이 응축된 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마다 10월을 맞으며 인민들의 환영속에 열리는 전국적인 경공업전시회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친근하게 자리잡고있다고 하시면서 전시회가 지난해와 또 다르게 규모와 내용, 형식에서 진일보를 가져오며 준비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된 제품들의 형태와 모양, 색갈과 질은 물론 상표와 진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질제고와 새 제품개발에 모를 박고 경쟁열풍을 고조시켜나가는 경공업부문의 비약적이고도 실속있는 발전면모가 확연히 알린다고, 이번 전시회는 날로 향상되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웅변해주고 우리 경공업의 발전궤도를 직관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지방발전정책에 의하여 새로 일떠선 시, 군옷공장들을 비롯한 지방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출품한 수십종의 맵시있고 질좋은 피복, 신발제품들이 중앙제품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고있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청산하고 전국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목적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중앙과 지방에 구축되여있고 해마다 확대되는 경공업토대들이 인민들의 높아가는 문화정서적요구와 다채로운 생활을 충족시킬수 있게 경공업의 활기찬 발전추이를 더욱 가속화하여 경공업의





진보가 우리 사회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추세와 문명발전을 선도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부문에서 제품의 도안을 선행시키고 발전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도안축전, 도안전시회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며 그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적취향을 파악하고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경제적효과성과 제품생산의 과학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식의 특색있는 민족옷발전을 적극 장려할데 대한 문제, 우리 국기의 상징적요소들이 조화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만들어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애국주의가 사회의 일상생활 전반에 깃들게 할데 대한 문제, 새로운 의복, 신발제품들을 년차별로 소개선전하는 각종 화첩, 잡지들을 널리 출판보급할데 대한 문제, 각급 생산단위들이 지역별독점지표들을 가지고 경쟁열풍을 고조시킬데 대한 문제, 학생교복과 가방, 신발생산에서 질을 지속적으로 담보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공업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단동시를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돐에 즈음하여 10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단동시를 방문하시고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중나온 왕호녕동지와 중국측 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정적인 환영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항미원조기념탑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의식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라는 글이 새겨져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억하시며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과 함께 싸운 영광의 년대를 영원히 기억할것이며 우리 혁명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에 대한 영원한 감사를 대를 이어 전해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왕호녕동지의 안내를 받으시며 《항미원조기념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력사의 화폭이 생생한 기록전시자료들과 수많은 전시품들을 보시며 《항미원조기념관》은 불패의 조중친선에 대한 고귀한 피의 검증이라고 하시면서 시련을 함께 헤친 훌륭한 력사를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고수하며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조중친선을 영원히 굳건히 계승해나갈 우리 당과 정부, 우리 인민의 의지를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항미원조기념관》 참관을 기념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사진문헌기념판을 선물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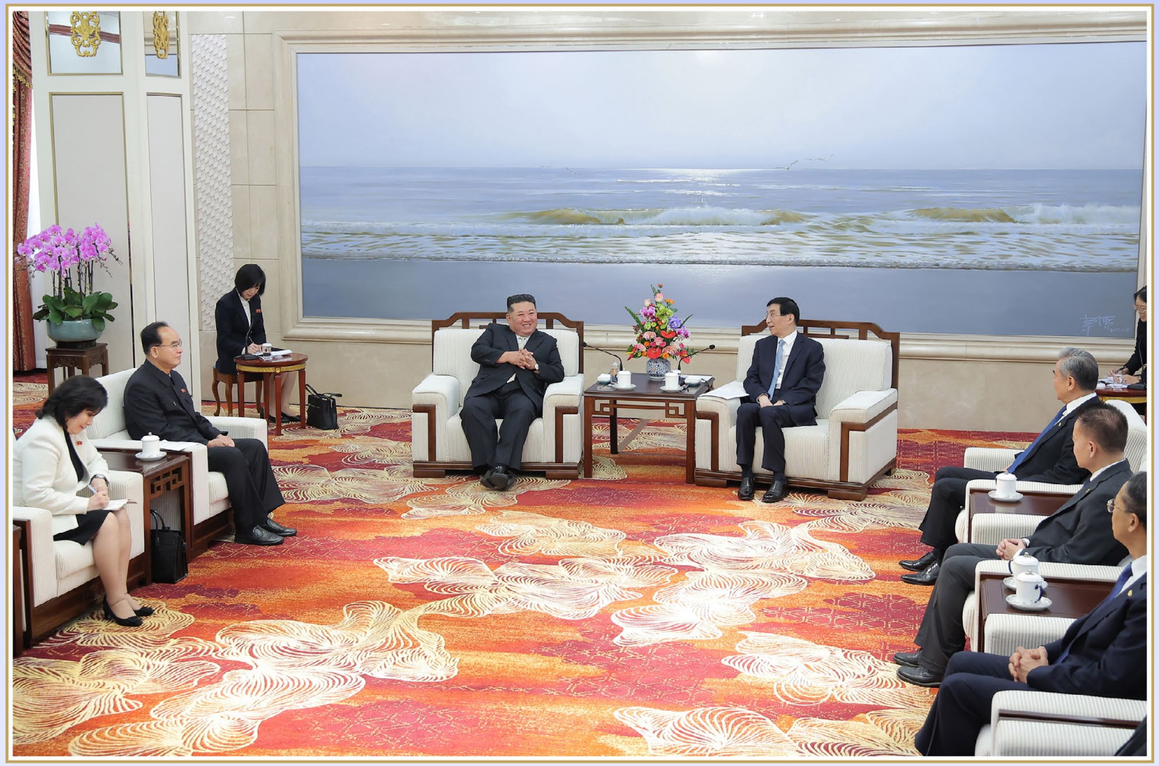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진문헌기념판에 《위대한 력사의 화폭속에 평화를 수호한 정의로운 넋과 정신이 고동하고있다. 두 나라의 지경을 한지맥으로 이어놓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발자취를 경건히 추억하며 영원한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 **김정은** 2026. 10. 24》이라는 친필을 새기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관을 마치시고 왕호녕동지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출병지에서 위대한 년대와 력사를 경건히 추억하는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로 된다,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새겨보는 순간이였다, 우리는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우리 혁명을 피로써 도와준 력사를 영원히 대를 두고 잊지 않을것이며 조중친선의 력사를 줄기차게 굳건히 이어나갈것이다, 오늘 우리의 방문에 특별하고도 세심한 관심을 돌려준 존경하는 습근평총서기동지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의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전해줄것을 부탁한다, 또한 단동시와 료녕성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닌 높은 국제적권위와 존엄은 중국인민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분투하고 투쟁하여 쟁취한 응당한 결과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린방에서 이룩되고있는 괄목할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습근평동지의 특별지시에 따라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왕호녕동지가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분위기속에 진행되였다.

이날 **김정은**동지께서는 단동시뻐스공장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참관하시고 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제품들을 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훌륭한 력사와 잠재력을 가진 공장이 보다 큰 성공을 이룩하기를 기원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기술집단과 로동자들의 혁신과 분투의 줄기찬 경주에 진심의 성원을 보낸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중압록강다리를 통하여 귀로에 오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송나온 왕호녕동지에게 존경하는 습근평총서기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준공된 다리의 중간지점에서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이 다리가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더 굳게 잇는 력사적인 사명을 의심할바없이 정확히 수행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왕호녕동지와 조중압록강다리에서 기념촬영을 하시고 중국측 지도간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중국당과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약적 발전의 로정을 더욱 훌륭하고 풍만한 성공들로 가득 채우며 이어나갈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돐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전면적륭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81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돐에 즈음하여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81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세차게 굽이쳤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돐을 경축하여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81돐을 맞으며 빙상관에서 진행된 대성산팀과 평양철도국팀사이의 녀자빙상호케이경기가 10월명절의 경축분위기를 더해주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남포시 등의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조선로동당창건 81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돐에 즈음하여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당창건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뜻깊은 10월명절을 경축하는 공연들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돐경축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가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돐을 맞으며 대성산팀과 평양철도국팀
사이의 녀자빙상호케이경기가 빙상관에서 진행되였다.

경축모임, 덕성발표모임, 웅변모임이 진행되였다.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서 10월명절을 경축하는 공연들이 진행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청년학생들과 녀맹원들의 흥겨운 경축무도회가 명절을 이채롭게 하였다.

옥류관, 평남면옥과 함흥시의 신흥관 등 각지의 급양봉사단위들과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차넘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이 날로 가속화되고 끝없이 문명부흥할 래일에 대한 신심이 더욱 높아지고있는 시기에 우리 인민은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을 맞이하였다.
《ㄹ.ㄷ》결성 100돐은 시원도 위대하고 계승발전도 위대한 조선혁명의 필승불패성을 뚜렷이 각인시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혁명적기개를 높이 떨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 진행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이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열풍》의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주요경공업공장들과 새로 일떠선 시, 군옷공장들을 비롯하여 270여개의 피복, 신발, 가방생산단위들에서 제작한 30여종에 7만 700여점의 피복제품과 60여종에 17만여컬레의 신발이 출품되였다.

인민들에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경공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다종다양한 제품들이 특색있게 전시된것으로 하여 전시회장은 이채를 띠였다.

사진 라평렬, 리명국
글 박경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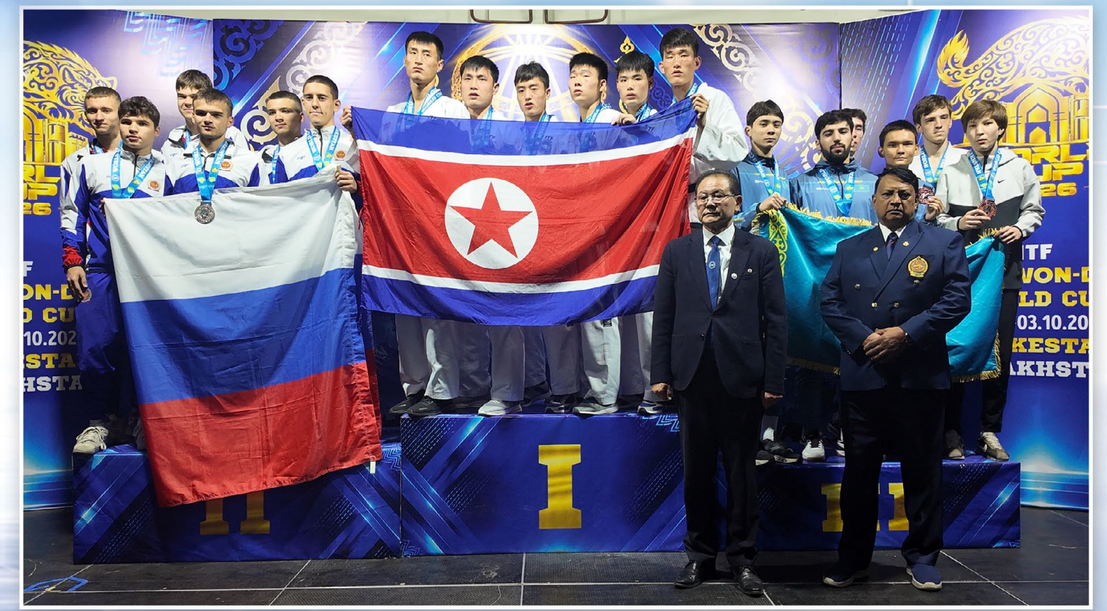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열풍》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피복공업과 신발공업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공유하여 우리 시대의 문명에 걸맞는 옷차림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우리 태권도선수들 《세계컵태권도경기대회-2026》에서 26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41개의 메달 쟁취





《세계컵태권도경기대회-2026》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까자흐스딴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와 로씨야, 따쥐끼스딴을 비롯한 24개의 나라와 지역의 890여명의 선수, 감독 등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태권도선수들은 26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41개의 메달을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 진행





조중 두 나라사이의 쌍무교류와 협조를 심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설계되고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속에 조중압록강다리가 완공되였다.

조중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이 10월 15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강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태성동지의 화상축하발언이 있었다.

쌍방의 차행렬들이 다리를 통과한 다음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이 선포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정평군에 펼쳐지는 새 생활

- 정평군의 경공업공장들과 종합봉사소에서 -







새로 일떠선 경공업공장들과 다기능화된 문화생활거점은 정평군 인민들에게 새 생활의 희열을 안겨주고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된장, 간장, 사탕, 과자와 여러가지 음료들, 오리고기와 수산물, 락화생을 비롯한 군에서 나는 원료로 만든 제품들이며 맵시있고 무늬가 고운 수지제품들과 빨래비누, 샴푸, 린스, 그릇세척제 등이 생산되여 인민들에게 가닿고있다.

경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더 많이, 더 질높게 생산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이 과정에 경공업공장들의 제품가지수는 늘어나고 군의 소재지와 농촌마을들의 상점들은 새 공장들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날마다 흥성이고있다.

대중문화생활거점으로 일떠선 정평군종합봉사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다기능화된 종합봉사소에는 종합상업구와 도서관, 영화관 등이 있다.

이곳에서 군주민들은 상업, 급양, 사진, 정보기술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봉사를 받고있다.

종합상점에서는 도와 군의 여러 단위들에서 생산한 갖가지 제품들을, 특산물식당에서는 정평군의 특산음식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료리들을 봉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400여석의 관람석을 갖춘 영화관도 군주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도서관에서 근로자들과 학생들은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해나가고있다.

오늘 정평군인민들은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의 정당성을 체감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다.

사진 최원철, 황정혁
글 김선경



다기능화된 종합봉사소로는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언제나 흥성이고있다.











건강에 좋은 식료품들을 생산한다

- 삼지연들쭉음료공장 -

삼지연들쭉음료공장에서 생산하는 들쭉제품들이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다.

공장에서는 백두산일대의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재배한 백두산들쭉을 주원료로 여러가지 들쭉제품을 생산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이름난 특산물들중의 하나인 백두산들쭉은 그 영양학적 가치와 약리적효능이 다른 곳에서 자란 들쭉에 비해 높다.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백두산들쭉을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널리 리용하여왔다.

들쭉의 독특한 맛과 유효성분이







그대로 보존되여있는 공장의 제품들을 사람들 누구나 좋아한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개발자가 되여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 과정에 가치있는 창의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여 설비들의 성능이 개선되고 제품의 질을 높이게 되였다.

새 제품개발에도 주되는 힘을 넣어 들쭉제품이 조업당시 9가지로부터 수십가지로 늘어나게 되였다.

2019년에 조업한 삼지연들쭉음료공장은 량강도 삼지연시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 리진혁, 글 김선경



량강도의 특산물인 백두산들쭉은 순환기계통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 물질대사촉진과 약물중독해제 등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삼지연들쭉음료공장에서는 백두산들쭉을 원료로 하여 여러가지 음료들과 식품들을 생산하고있다.

백두산들쭉제품에 대한 구매자들의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인재들을 키우는 금성제1중학교





학교는 국가의 깊은 관심속에 정보기술인재들도 육성하는 정연한 교육체계를 갖춘 종합적인 인재양성기지로 강화발전되였다.

학교교육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의 과외소조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뛰여난 예술적재능과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다방면적인 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낸것으로 하여 학교는 1996년 5월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금성제1중학교는 뛰여난 예술적재능과 비상한 두뇌를 소유한 재간둥이들을 키워내는것으로 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제14차 국제손풍금(어린음악가)콩클에서 최고상인 특등상과 콩클컵을 쟁취한 김영성과 임명진, 제14차 세계아마츄어바둑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한 두뇌》, 《조선의 수재소년》으로 이름떨친 문영삼도 이 학교에서 배출한 인재들이다.

지난해 5월 로씨야의 연해변강을 방문하여 풍만한 예술적기량으로 파문을 일으킨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도 바로 이곳 학생들이다.

1966년 11월 음악, 무용, 서예 등에 천성과 소질이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과 공연활동보장을 목적으로 창립된

수여받았다.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모든 사업을 지향시키고있다.

학교에서는 모든 교실과 실험실습실들을 정보화하고 선진적인 인재육성방법을 탐구적용하여 교육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학생들의 나이별심리적특성과 지적수준, 천성적소질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방법들을 구현하여 실효를 거두고있다.

지금 금성제1중학교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학교교육을 보다 높은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강진성

국제적수요가 높아가는 《은방울》 손풍금과 바얀

평양악기공장에서 생산하는 《은방울》 손풍금과 바얀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국제악기전시회들에 출품되여 호평을 받았다.



손풍금 《은방울120》
(13/7)



손풍금 《은방울120》
(15/7)



바얀 《은방울120》
(15/5)



바얀 《은방울100》
(0/1)





함경남도승마구락부



함경남도 함흥시에 도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대중승마봉사기지인 함경남도승마구락부가 새로 일떠서 지난 4월에 준공하였다.

승마구락부에는 승마지식보급실, 기초훈련장, 야외훈련 및 승마기교장 등이 꾸려져있고 승마복과 승마용장구류들이 그쯔히 갖추어져있다.

주변경치와 조화를 이루며 일떠선 승마구락부로는 련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는데 누구나 이곳에 들어서기만 하면 절로 마음이 상쾌해진다고 한다.

승마지식보급원들의 방조속에 말고삐를 쥐는 법과 말안장에 오르는 법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뽐내기라도 하듯 제법 박차를 가하며 경쾌하게 달리는 애호가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달리는 말과 몸의 률동을 맞추며 주로를 따라 내닫는 사람들과 말고삐를 틀어쥔채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탄성과 웃음이 뒤섞여 승마장은 떠나갈듯하다.

공업도시 함흥시에 펼쳐진 승마풍경은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김선경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사람들

- 세포군산림경영소 -

우리 나라 강원도 세포군에 가면 산들마다에 무성한 산림이 펼쳐져있다.

바람이 비교적 세고 눈비가 많이 오는 세포군에서 나무를 심어 거목으로 키운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군안의 적지 않은 산들은 돌이 많고 토심이 깊지 못하였다.

하여 군에서는 산림복구계획을 단계별로 세우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갔다.

우선 세포군산림경영소의 양묘장면적을 훨씬 늘이고 그 변두리에 방풍림도 조성하여 나무모들을 튼튼히 키워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나무모를 한해에 두회전 생산할수 있는 온실들도 새로 건설하여 봄과 가을철에 심을 각종 나무모들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나무심기를 진행하였다.

군에서는 지대적특성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토심이 깊은 곳을 1차식수대상지로 정하고 이깔나무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게 하였다.

돌이 많고 토심이 얕아 구뎅이를 깊이 파고 흙을 깔아야 할 곳을 2차식수대상지로 정하고 뿌리가 옆으로 퍼지거나 키가 작은 수종의 나무를 심게 하였다.

결과 사름률과 수림화속도가 높아졌으며 군내인민들 모두가 산림복구사업에 더욱 분발하여나서게 되였다.

오늘도 세포군사람들은 자기 고장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사진 라평렬, 글 김선경







3개의 박사메달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실장
교수 박사 맹태원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실장 맹태원의 가정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박사가정이다.

그는 화학박사이고 안해 조신옥과 딸 맹유경은 의학박사이다.

박사가정이 거둔 성과와 남다른 명예에 대하여 누구나 부러워할 때마다 그들은 과학탐구로 흘러온 나날을 돌이켜보군 한다.

맹태원은 근 40년을 과학연구사업에 바쳐왔다.

평범한 군인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희망대로 연구사로 일하게 되였다.

그 나날에 그는 합성고무생산을 공업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한것으로 하여 40대에 박사가 되였다.

지난 기간 그는 촉매화학과 관련한 많은 교과서와 참고서들도 집필하여 화학분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0여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키워냈다.

평양종합병원 과장으로 일하고있는 맹태원의 안해 조신옥은 유전의학자이다.

수십년전 그는 유전성질병들의 진단체계를 세울 목표를 내세우고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실패와 고심도 많이 하여온 나날속에 조신옥은 유전성질병들에 대한 진단방법들을 새롭게 확립하고 그 치료방법을 과학화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그도 40대에 박사가 되였다.

딸 맹유경은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후 어머니의 뒤를 이어 유전의학분야의 연구사가 되였다.

맹유경은 언어병리학연구에서 성과를 이룩하여 30대에 박사가 되였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그들이다.

그들은 나라의 화학공업과 의학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연구과제들을 수행할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달성을 위해 분투하고있다.

최근에도 맹태원은 화학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도 박사가정의 과학탐구의 길은 계속 이어지고있다.



평양의학대학 유전의학연구소
연구사 박사 맹유경







평양종합병원 과장
교수 박사 조신옥



사진 라평렬, 글 김선경

불빛흐르는 강변의 정서

평양시의 여러 구역에 시원을 둔 물줄기들이 하나로 합쳐져 흐르는 장산소하천과 그 주변환경이 일신되여 아름다운 풍경을 펼치였다.

유보도가 새로 포장되고 많은 면적에 달하는 록지구간의 면모가 개변되였다.

낚시터, 뽀트장 등이 새로 꾸려진 소하천과 그 주변은 인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문화정서생활은 저녁이면 더욱 활기를 띠고있다.

울긋불긋한 불장식들이 운치를 돋구는 분수와 여러가지 색등들로 장식된 소하천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여러가지 오락을 하며 웃고떠드는 사람들이 시간가는줄 모르고있다.

그런가 하면 낚시애호가들의 모습은 강변의 류다른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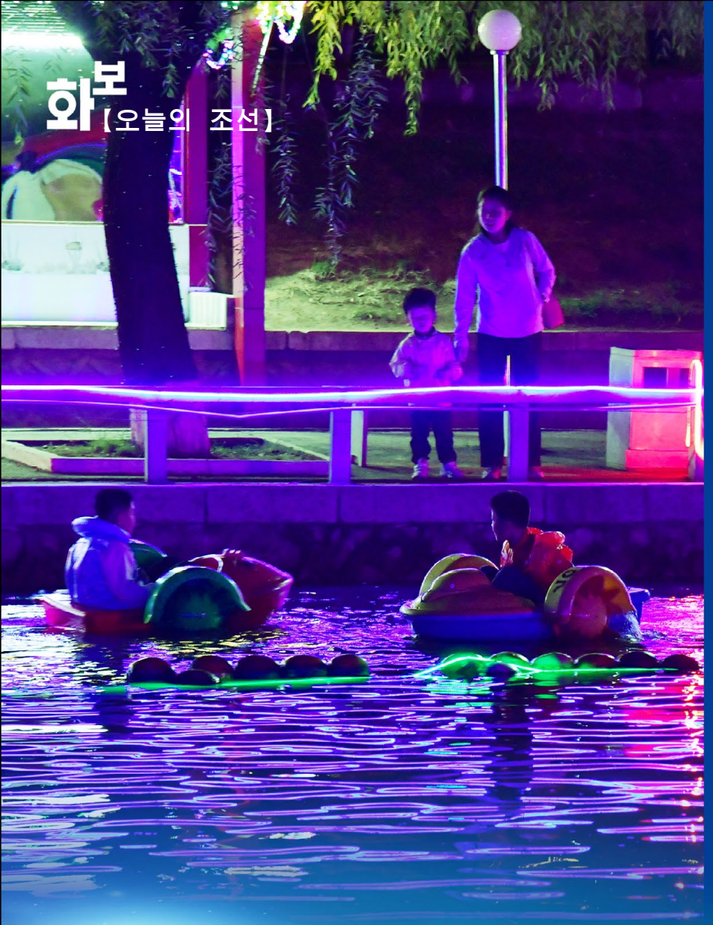
소하천에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은 뽀트장이다.

뽀트장을 리용하는 손님들의 만족스런 모습은 소하천의 저녁풍치를 한껏 돋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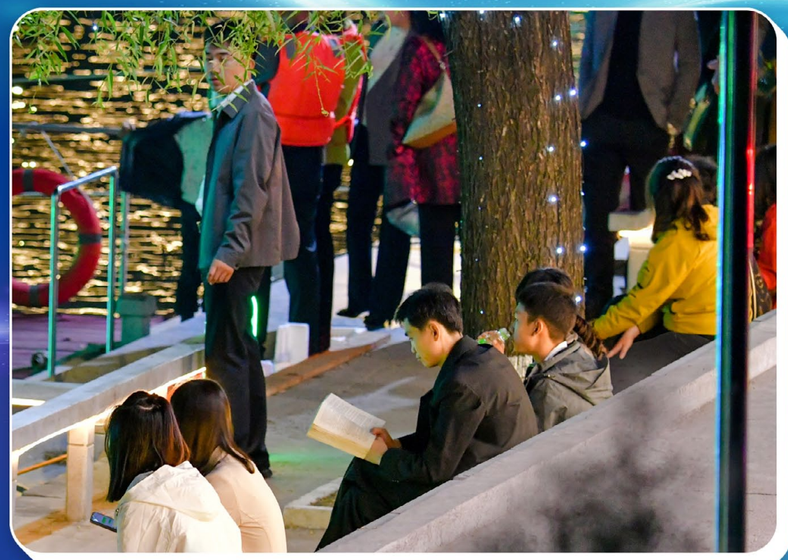
불고기와 청량음료를 봉사받을수 있게 꾸려진 급양봉사시설, 물깊이에 따라 나이별로 안전을 담보할수 있게 구획을 지어준 뽀트놀이구간은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유보도에서 산책을 하며 소하천의

화보
【오늘의 조선】

















새 풍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피여오른다.

지금 장산소하천주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

사진 리명국, 리진혁
글 김선경

PORTAL SITE OF DPR KOREA www.dprkportal.kp
www.rodong.rep.kp
www.kcna.kp
www.vok.rep.kp
www.minju.rep.kp
www.naenara.com.kp
www.pyongyang-times.com.kp
www.youth.rep.kp
www.mediaryu-gyong.com.kp
www. korean-books.com.kp
www.kass.org.kp
www.mfa.gov.kp
www.tourismdprk.gov.kp
www.korart.sca.kp
www.kftrade.com.kp
www.korstamp.com.kp
www.ryomyong.edu.kp
www.moph.gov.kp
www.mirae.aca.kp
www.sdprk.org.kp
www.yongsaeng.org.kp
www.koreanarchi-tecture.com.kp
www.korfilm.com.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www.gpsh.edu.kp
www.kiyctc.com.kp
www.korelcfund.org.kp
www.kza.org.kp
www.manmul-sang.com.kp
www.cooks.org.kp
www.knic.com.kp
www.dprkrcs.com.kp
www.koredufund.org.kp
www.ma.gov.kp
www.fia.law.kp
www.dprknado.org.kp

세계어린이건강의 날



11.2.







모든 어린이들을 위하여

© 조선화보사 2026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로어, 중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ㄱ-26088060658